

광주 미분양 넘쳐나는데...시의회, 주거 용적률 완화라니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400% 이하→540% 이하 변경 조례 의결 시·시민단체 “상업시설 규제 완화는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 반발

광주시의회가 공급과잉으로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무시하고,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완화를 담은 조례안을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심 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층고와 강남, 삼부지구, 일부 첨단지구 등이 해당한다.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게

되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자재·설계·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서비스업 전반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며 "도심 내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설 수요가 늘어 고용·소비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도심에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 상업·문화·의료 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도심 인구 밀집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강

력 반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 상업지역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차례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신수정 의장에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말고 시·시의회-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과 숙의를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며 용적률 완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아직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아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광주시 담당 부서도 이날 오후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상업지역에 주거 시설이 확대되면 시민 생활의 필수적이고 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으로 초·중·고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정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공동주택 과잉 공급·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주거 용적률 완화를 통한 주택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시의회 일방통행식 조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하면 중심 상업지역의 상업·업무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민의 주거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도심 공동화 방지, 상업 활성화 등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분석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고 미분양과 거

래되지 않는 아파트로 시민들의 믿음은 높아가고 있다"며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도시공간이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건축 전문가 사이에서도 시의회 이번 조례안 의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용적률 완화는 통상 집행부인 광주시에서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것인데 이른바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의명을 요구한 한 건축 전문가는 "용적률 완화는 비상 집행부가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집행부인 광주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안도 아닌 용적률 완화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의결한 것을 보면, 불순한 사업적 의도 등이 담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오전 브리핑 형태로 해당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비상행동이 1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오는 15일 예고된 보수단체의 광주집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보수단체들의 광주 집회를 규탄한다”

오월 단체 성명 “극우 선동 세력 막아낼 것”

보수 단체들이 광주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오월 단체들이 규탄 목소리를 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보상자회·공모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2일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 광주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극우 선동 세력의 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12·3 내란사태, 서부지법 폭동사태, 내

란 수괴를 옹호하며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이 5·18정신이 깃든 광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이며, 극우 선동과 역사 왜곡이 발붙일 곳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전향길 강사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헌법재판소 난입과 계엄령 정당화 옹호, 반대하는 국민을 '제2의 을사오

직'으로 모욕하는 등 극단적 선동을 자행했다”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여당 국민의힘이 이러한 거짓 선동과 역사 왜곡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광주는 민주주의와 진실을 지켜온 땅으로 오월 단체들은 극우 선동 세력의 광주 집회를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와 사법기관은 집회에서 보인 전 강사의 발언과 행보가 내란 선동 등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힘 또한 거짓 선동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파·폭설에 혈액 수급도 얼었다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 4.6일분 불과 혈액원, 3월 12일까지 헌혈 캠페인

겨울철 독감 확산으로 주춤했던 혈액 수급량이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해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며 차질을 빚고 있다.

길었던 명절 연휴와 더불어 한파와 장기간의 폭설로 인해 시민들의 활동이 제한되며 헌혈의 집을 찾는 헌혈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12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수혈에 사용되는 적혈구제제 기준 혈액보유량은 4.6일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적정 수준인 5일분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혈액형별로 보면 O형 5.0일분, A형 3.0일분, B형 6.5일분, AB형 4.6일분으로 A형 보유량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인 5일분보다 적으면 관심, 3일분 미만이면 주의, 2일분 미만이면 경계, 1일분 미만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한다. 광주·전남은 현재 관심 단계다.

이날 전국의 혈액 보유량도 4.4일로 적정 보유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학교 방학으로 헌혈 참여율이 낮아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10대·20대 헌혈자가 전체 헌혈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단체 헌혈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혈액원은 오는 3월 12일까지 '70일 간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혈액원 관계자는 “매년 동절기는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외출하기 힘든 추운 날씨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따뜻한 생명나눔 헌혈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응급실·수술실 '춧다운'

▶1면에서 계속

전남대 응급의학과 A교수는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의 3명과 전공의 한 명이 이달말 사직을 함에 따라 3월부터는 광주·전남에서도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다른 과의 경우 전임의들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응급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해당과 전임의를 불러야 하지만, 현재 일부 과에서는 야간에 응급실의 콜(호출)을 받지 않는 상황도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일부과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응급의학과 콜

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전언이다.

결국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해당과 진료와 처치가 불가능하고 응급의학과 진료진이 밤새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남대병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A교수는 “타 지역과 같이 일주일 중 하루씩 응급실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물리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뺑뺑이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올해 전남대병원 올해 전공의 지원자는 2명(인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박씨낙촌공후자랑공파보 편찬안내

밀양박씨일제공파
密陽朴氏落村公後子郎公派譜를 편찬코자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수단(2차): 2025. 06. 30까지
-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통지 하오니 가까운 친척들에게 상호연락 참여 하도록 협조바랍니다.

연락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70-38
총무이사 박인철
(010-3480-0545)
2025. 02. 13.

밀양박씨낙촌공후자랑공(일제공)중중
회장 박영호 (010-3643-1771)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동 209-1920, 문 209-1900,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영 신 571-7658, 오 치 266-7001
· 흥 흥 433-1503, 우 신 433-1503

동구: 남 광 673-9836, 동 광 222-9054, 동 부 225-6001
· 동 영 222-9054, 동 광 222-9171

남구: 남 부 673-9836, 백 안 651-1833, 흥 신 673-6836
· 동 흥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경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 은 천 376-7153, 서 평 376-6511, 흥 영 603-0311
· 화 정 393-1625

광산구: 은 남 952-1887, 월 국 950-1920, 흥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흥 신 944-0444